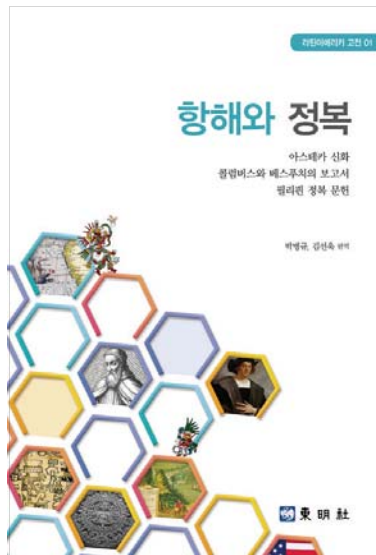


Books

신간소개



항해와 정복 - 아스테카 신화, 콜럼버스와 베스푸치의 보고서, 필리핀 정복 문헌

박병규·김선욱 편역

출판사: 동명사

출판일: 2017-12-30

ISBN(13): 9788941181811

268쪽 | 225*152mm

소란스러운 시대, 기존의 세상 지도는 갈수록 쓸모가 없어지고 아직은 새 지도도 만들지 못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남긴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글 모음집이다.

제1부에서는 아스테카의 태양신화 5종류를 비롯하여 우이칠로포츠틀리의 탄생신화를 번역하고 해제를 달았다.

제2부에서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에 앞서 스페인 왕실과 체결한 ‘산타페 협정문’, ‘익명의 동양군주에게 보내는 친서’, ‘신대륙 도착을 알리는 콜럼버스의 편지’, ‘3차 항해에서 가톨릭 양왕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베스푸치의 문헌 『신세계』와 ‘네 차례 항해에서 발견한 여러 섬에 대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편지’를 수록했다.

제4부는 동양으로 진출하려던 16세기 스페인의 꿈과 열망을 읽을 수 있도록 ‘펠리페 2세가 1560년 중국 황제에게 보낸 서한’을 비롯하여 레가스피를 비롯한 여러 정복자들이 필리핀의 곳곳을 정복한 기록을 담았다.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지중해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전3권)

페르낭 브로델(저자)

주경철·조준희(역자)

출판사: 가치

출판일: 201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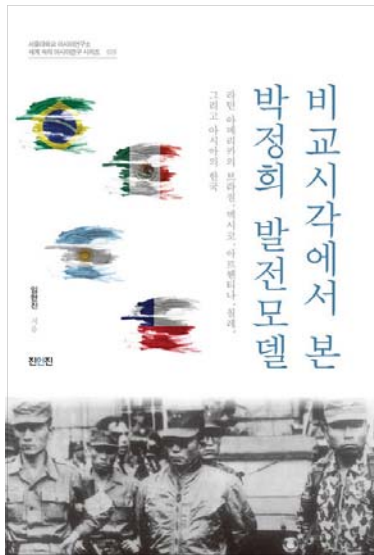
ISBN(13): 9788972916468

572쪽 | 225*155mm

16세기 지중해는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펠리페 2세 통치기의 지중해 세계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교역이 일어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펼쳐지던 놀라운 세계였다. 역사학계의 ‘교황’이라고 부르는 페르낭 브로델은 각국의 문서보관소에 있는 당시의 문서를 샅샅이 파헤침으로써 16세기의 지중해 세계를 엄밀하게 재구성하여 현대의 독자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대한 스케일, 엄청난 자료, 참신한 해석의 틀 등이 압도하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분은 그 자체로 총체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시간적으로는 펠리페 2세 시대, 곧 16세기 후반기 5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연구 대상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레반트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지중해의 바다와 육지 세계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페르낭 브로델이 1923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49년에 출간한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분은 그 자체로 총체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시간적으로는 스페인의 군주 펠리페 2세 시대, 곧 16세기 후반기 5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연구 대상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레반트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지중해의 바다와 육지 세계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비교시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임현진(저자)

출판사: 진인진

출판일: 2017-12-28

ISBN(13): 9788963473604

260쪽 | 225*153mm

이 책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으로 일컬는 박정희 집권기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한 지배 과정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라틴아메리카의 4개 국가의 사례와 더불어 비교발전론적인 분석을 제시한 학술서이다.

저자는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의 지배양식과 발전경험을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비교를 통해 그 시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비교발전론적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그 비교의 대상으로는 비슷한 시대에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를 설정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박정희 지배시대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배이데올로기, 종속적 발전 과정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 과정, 국가기구 자율성의 강화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2부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의 사례를 각각 1개의 장을 할애하여, 각국의 군사정권의 특징과 함께 국가기구가 사회, 경제, 노동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간략하지만 짜임새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세계 경제에서의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개발을 시도하게 되는데, 국가별로 국가 권력의 탄생 배경이나 사회적 지배력, 저항세력과의 역학관계에 의해 고유한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